

■ 베일 벗은 애플 무료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애플 모든 기기에서 실시간 자료 공유”



애플이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iCloud)'를 공개하며 아이폰, 아이패드, 맥(MAC), 아이팟터치로 이어지는 애플 시리즈의 시너지 강화에 나섰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 컨벤션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회의(WWDC)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와 아이폰과 아이패드 운영체제(OS) iOS5, 그리고 애플의 PC 맥(MAC) OS인 OS X 라이언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애플이 처음으로 선보인 클라우드 서비스 '아이클라우드'였다. 아이클라우드는 지금까지 맥이 담당했던 허브 역할을 외부의 대응 서버가 대신하게 함으로써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아이팟터치 간 자동 동기화가 가능한 서비스다.

어느 하나의 기기에서 사진을 찍거나 문서를 편집하면 별도로 다른 기기에 옮겨놓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든 기기에서 해당 정보가 동기화된다. 거령 아이폰에서 사진을 찍고 맥이나 아이패드에서 방금 찍은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기화되는 콘텐츠는 사진과 문서뿐만 아니라 음악, e북, 주소록, 일정 등 스마트 기기에 다루지는 대부분의 자료가 포함된다.

최고경영책임자(CEO) 스티브 잡스는 아이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눈

아이폰서 작성한 문서 아이패드에 자동 저장 새 운영체제 iOS5 공개...잡스 직접 PT 눈길

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가 클라우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암시한 셈이다.

그는 "이제는 모든 기기에서 음악과 영상을 저장하고 즐기고 있다"면서 "이 모든 자료를 일일이 동기화하는 것은 정말 성가신 일"이라고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많은 사람이 클라우드를 하늘에 떠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제공한다"면서 "(모든 동기화는) 스스로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아이튠즈를 통해 내려받은 음악도 아이패드와 맥, 아이팟터치 등에서 동시에 공유되지만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아이튠즈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음악이라고 해도 아이튠즈 매치(iTunes Match)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간의 비용으로 아이클라우드 서버에 같은 음악을 저장할 수 있다.

이날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새 버전 OS인 iOS5도 공개했다.

iOS5 발표에 나선 스티브 잡스는 애플 수석부사장(SVP)은 "지금까지 42만5000여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업로드되는 등 iOS의 사용량은 엄청나다"며 "이번 iOS5는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 놀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iOS5에는 이메일, 메시지, 일정 등 다수의 알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림센터(Notification Center)와 iOS 기반의 스마트 기기 간 3G나 와이파이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시지 아이메시지(iMessage)가 포함됐다.

뉴스와 잡지를 통합한 뉴스 스탠드 기능과 위치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알림서비스도 추가됐고 트위터를 운영체제 설계단계부터 탑재해 주소록 연동, 위치정보 트윗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볼륨업 버튼을 사진 촬영 셔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진 편집 기능을 강화하는 등 카메라 기능도 추가로 업데이트했다. 메일에는 메뉴 기능을 화면 안으로 밀어넣는 인박스(in-box) 제스처 등 편의 기능을 보강했으며 하단의 키보드를 양 측



라우징이 수월해졌다. 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셋팅을 위해 컴퓨터를 연결해야 하는 불편도 없었다.

iOS5는 오는 가을부터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며 아이패드는 전 기종, 아이폰과 아이팟터치는 각각 3GS, 3세대 이상부터 가능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인터넷 가상 공간에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이메일, 사진, 동영상 등 데이터를 저장한 후 일반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 각종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면으로 분리해 더 많은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사파리 브라우저에는 탭 기능이 추가돼 멀티 브

SKT '모바일 지갑' 인기 폭발

'스마트 월렛' 1년만에 200만 다운로드



SK텔레콤은 모바일 지갑 서비스인 '스마트 월렛'(Smart Wallet)이 출시 1년 만에 다운로드 200만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 월렛은 각종 멤버십카드와 쿠폰, 기프트콘, 상품권 등을 휴대전

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6월 T스토어를 통해 첫 선보였다. 이후 꾸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양한 모바일 커머스 기능을 추가했다.

특히 자동 가계부 작성, 초특가 상품 구매가 가능한 모바일 쇼핑물 연계 서비스 등 유용한 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멤버십카드 관리에서부터 온오프라인 쇼핑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전국 총 89개 브랜드, 6만여 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달 중에는 이용 고객이 보유한 다양한 신용카드의 적립 포인트를 통합해 주유상품권, 기프트콘 등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통합 포인트 쇼핑물'과의 연계 기능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휴대전화 전자파 규제 강화

방통위, 인체 범위·기기 확대 등 종합대책 마련

앞으로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과 규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통통신위원회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 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전자파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국제기준과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대상 기기 및 측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SAR 1.6W/kg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SAR

기준은 100kHz~3GHz 주파수 대역에서 일반인의 경우 전신 0.08W/kg, 머리·몸통 1.6W/kg, 사지 4W/kg이다.

SAR 1.6W/kg이란 1kg의 인체 중량에 1.6W의 에너지(전자파)가 가해진다는 의미다. 이는 1kg의 인체 중량에 4W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체온이 1℃가량 상승하게 되며, 체온이 상승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머리 외에 몸통과 팔, 다리에도 SAR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규제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국 등과 같이

SAR 적용 범위와 전자파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휴대전화 잠시간 이용자 및 어린이 등 전자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지난 2000년부터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의과대학, 알선터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즉, 현행 머리에만 적용되는 SAR의 적용 범위를 몸통과 팔, 다리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기를 현행 휴대전화에서 태블릿PC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연구결과에 따라 SAR 적용 기준을 성인과 어린이, 취약계층 등으로 나눠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KT '3G+와이브로 결합요금' 출시

KT는 3G 가입 고객에게 최대 75%까지 할인해주는 '3G+와이브로 결합요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3G+와이브로 결합요금은 3G 고객이 연말까지 '와이브로4G 30G'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 1만9080원인 와이브로30G 요금제를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월 5만5000원 이상의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24개월 결합 약정으로 와이브로 30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이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KT는 다음달 중순에는 월 5만5000원 이하 3G 요금제 사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 50% 할인된 1만원에 와이브로30G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다.

와이브로30G 요금제는 한달에 무제한에 가까운 30GB(기가 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3GB보다



향상된 속도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KT는 이 요금제의 출시를 기념해 7월말까지 가입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아이폰2, 상품권, 커피교환쿠폰을 제공하는 'Right now 4G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